

기혼부인의 가족주기단계별 경제실태와 정책방향

Living Profiles and Policy Development by the Family Life Cycles of Married Women Focusing on Economic Aspect

曹愛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족주기는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의 변화양상은 가족주기 단계별 복지대책 또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가족주기의 변화는 각 단계별 가족생활상의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른 복지욕구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도 각 단계별 복지욕구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15~64세 기혼부인 중 초혼부인을 대상으로 가족주기 단계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가족주기 단계의 구분 및 변화양상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한 2세대 가족의 주기에 관한 기본모형은 2세대 핵가족을 중심으로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초혼연령을 기초로 하며, 첫 자녀의 출산에서 막내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출산기간과 자녀의 결혼 및 배우자의 사망 등과 같은 인구학적 사건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첫 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시작하여 첫 자녀 출생시까지, 확대기는 첫 자녀 출생시부터 막내 자녀 출생시까지, 그리고 확대완료기는 막내 자녀 출생시부터 자녀의 집떠남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이다. 그리고 축소기는 첫 자녀의 집떠남으로부터 남은 자녀까지 모두 집을 떠난 시점까지, 축소완료기는 자녀가 모두 집을 떠난 시점에서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마지막으로 해체기는 배우자의 사망시기부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구분된다¹⁾.

표 1. 가족주기의 단계별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가족주기 단계	I	II	III	IV	V	VI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시작시점	결혼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 집떠남 시작	자녀 집떠남 완료	배우자 사망
종료시점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 집떠남 시작	자녀 집떠남 완료	배우자 사망	본인 사망

자료: WHO, *Health and the Family Studies on the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s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a, 1978.

▶ 본고는 宋寅珠 연구원과 공동작업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1) 본고에서는 자녀의 '집떠남'은 자녀의 '결혼'으로 대체함.

이러한 가족주기는 결혼부터 자녀출산 완료시점인 형성기 및 확대기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력 저하에 의한 소자녀규범의 정착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확대완료기는 자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차 연장되고 있다. 또한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시작 시기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시기인 축소기는 점차 단축되는 경향이며, 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 부부만의 시기인 축소완료기는 젊은 층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혼자 남게 되는 해제기는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2.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부인의 특성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결과 초혼상태인 부인은 98.2%로 대부분의 부인들이 초혼상태이다. 이들 중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부인의 분포를 보면, 출산을 완료한 확대완료기의 부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58.6%)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결혼이 시작된 축소기에 속하는 부인들이 12.1%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별거중인 해제기²⁾에 있는 부인들도 상당수 되어 10.3%이었으며, 자녀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확대기에 속하는 부인들은 10.0%, 그리고 아직 자녀의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혼부부만의 기간인 형성기에 속하는 부인들은 5.0%이었다.

표 2. 가족주기 단계별 분포(2000년)

(단위: %, 명)

가족주기 단계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제기	계(수) ¹⁾
비율(N)	5.0(521)	10.0(1,048)	58.6(6,140)	12.1(1,271)	4.1(427)	10.3(1,075)	100.0(10,481)

주: 1) 초혼부인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자녀출산 경험이 없는 부인은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이들 부인들의 특성을 가족주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축소완료기의 부인들이 가장 고령으로 58.8세이며, 형성기는 27.9세로 가장 낮은 연령층이다. 해제기의 경우 축소기나 축소완료기보다 낮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가족주기를 거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별거는 자녀를 모두 결혼 시킨 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별 보다 이혼·별거는 더 낮은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의 사별부인은 조사당시 54.8세, 그리고 이혼·별거부인은 44.8세이다.

교육수준은 연령과 관련하여 고령층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형성기와 확대기 부인들은 95%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이나 확대완료기 부인들은 70.4%, 그리고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15~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형성기 부인들은 25.8세이나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20.3세로 고령층일수록 초혼연령은 낮은 편이다. 평균 결혼기간은 초혼연령이 낮은 고령층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에 속하는 부인들일수록 길어 형성기 부인들은 2.2년에 불과한 데 비해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약 40년 정도나 된다.

2) 본고에서의 해제기에 속한 부인들은 사별, 이혼·별거상태인 부인들로서 모든 부인들이 전형적인 가족주기 단계를 거친 것은 아님.

평균 출생아수 역시 가족주기의 전기단계에 속하는 부인들의 경우 적은 편이나 후기단계에 속하는 부인일수록 많아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3.5~3.8명에 이른다. 이는 그간의 인구억제정책에 의한 결과로 젊은 층의 부인일수록 소자녀 규범의 정착과 관련하여 적은 자녀로 만족하는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가구규모를 보면, 형성기 부인들과 해체기 부인의 경우 각각 2.2명으로 가장 적은 규모인데, 형성기는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단계이고, 해체기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별거로 인한 부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가족의 규모가 가장 큰 주기단계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지 않은 확대완료기 부인들로 4.0명이고, 그 이후 단계 부인들의 경우 가족규모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이는 자녀들의 결혼이 시작됨으로써 가족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부인들의 취업률은 자녀출산전인 형성기 부인들은 51.6%이다. 자녀의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확대기 부인들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낮아 29.2%에 불과한 반면, 자녀의 출산이 완료된 확대완료기 이후 부인들의 취업률은 다시 상승하여 확대완료기 45.2%, 축소기 48.5%, 그리고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44.0%가 취업중이다. 이는 우리 나라 부인들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자녀양육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은 15세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여 결혼적령기인 25~29세 연령층을 전후로 가장 높아졌다가 결혼과 함께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낮아진다. 그리고 본격적인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지난 30세 이후부터는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도 미취업 부인 중 37.7%가 자녀양육문제를 미취업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확대기 부인들의 82.2%, 확대완료기 부인들의 44.1%가 자녀양육 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외 해체기에 속한 부인들의 취업률은 다른 주기단계의 부인들 보다 높아 59.1%가 취업중이다. 이는 대부분의 생계 주부양자이던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별거로 그 역할을 부인들이 맡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³⁾.

표 3. 가족주기 단계별 부인의 특성(2000년)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평균 연령(세)	27.9	29.4	39.3	55.1	58.8	51.7
고교 이상 학력(%)	96.7	94.9	70.4	15.7	16.2	25.4
평균 초혼연령(세)	25.8	24.5	23.6	21.1	20.3	21.5
평균 결혼기간(년)	2.16	4.99	16.0	34.7	39.7	21.1
평균 출생아수(명)	0.0	1.21	2.12	3.77	3.46	2.98
평균 가구원수(명)	2.15	3.39	4.03	3.18	2.55	2.18
취업률(%)	51.6	29.2	45.2	48.5	44.0	5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3) 해체가족 중 편모가족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주 수입원인 소득이 1/2~1/3 정도나 감소되었다고 함(김미숙 외, 저소득 편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0).

3.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부인의 주거상태

가족주기별로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주기단계가 후기일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전기일수록 아파트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선호도의 세대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성기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데, 이는 결혼 초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자가를 소유하기 보다는 전세나 전·월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세를 든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가족주기 단계별 거주 주택 유형(2000년)

(단위: %, 명)

주택유형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단독주택	45.9	41.8	41.8	64.4	71.6	66.4
아파트	40.7	44.8	43.7	21.0	17.1	22.6
연립주택	5.4	8.4	9.7	8.9	8.0	6.2
다세대주택	5.6	3.1	2.3	2.8	1.6	2.3
기타	2.5	1.9	2.4	3.0	1.6	2.4
계 (N)	100.0 (521)	100.0 (1,048)	100.0 (6,139)	100.0 (1,271)	100.0 (426)	100.0 (1,0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가족주기별 주거여건의 차이는 주택소유형태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표 5>를 보면 형성기 및 확대기의 경우 전세 및 전·월세가 전체 소유형태의 70% 가까이 되나 축소기·축소완료기에서는 자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확대완료기 시기에 대부분의 가구가 자가를 마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⁴⁾ 특히, 앞서 확대완료기 가구의 주택유형에서 아파트 거주율이 이전 단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반해, 이 시기 자가소유율은 이전단계보다 2배 정도 크게 나타나 최근 자가를 구매하는 중년층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함을 보여준다⁵⁾. 그리고 주택유형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보다 높은 형성기 및 해체기 가구에서 자가를 제외한 여타 소유형태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해체기에서 전·월세, 월세 및 기타 가구의 비율이 높아 이들 가구의 주거사정이 다른 단계의 부인들 보다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4) 1997년 현재 결혼 이후 자가를 마련한 전체 가구(85.6%)의 53.1%가 결혼 후 6~19년 사이에 자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최초주택마련까지 소요되는 시기는 1987년 8.4년에서 1992년 9.1년, 그리고 1997년 10.9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확대완료기의 자가소유 부인 중 단독주택 소유율은 32.0%, 아파트 소유율은 52.6%임.

표 5. 가족주기 단계별 거주 주택 소유형태(2000년)

(단위: %, 명)

소유형태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자가	20.9	29.8	58.4	81.8	82.9	47.3
전세	55.9	51.1	29.6	10.5	9.9	24.2
전·월세	15.7	12.8	6.4	3.5	3.3	14.9
월세	5.0	3.1	2.9	2.0	1.9	8.7
기타	2.5	3.1	2.6	2.2	2.1	4.9
계 (N)	100.0 (521)	100.0 (1,048)	100.0 (6,139)	100.0 (1,271)	100.0 (426)	100.0 (1,0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4. 가족주기 단계별 경제상태

가족주기 단계별 재산현황을 동산, 부동산 및 자가용 보유 여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산의 경우 형성기와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 부인들의 보유규모가 가장 크고, 부동산의 경우는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 부인들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무엇보다 결혼과 함께 우리 나라 부부에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내집 마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가족주기 전단계인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의 경우 근로소득 등이 가장 많은 시기로 동산규모가 비교적 큰 반면, 자가소유율이 높은 축소기 이후에서는 동산규모는 축소되고 부동산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가족주기 전단계 중에서도 확대완료기에서 그 규모가 가장 작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물론, 본격적인 자녀교육에 의한 일상적 소비지출 규모가 이 시기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가용 소유여부는 확대완료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 및 직업지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용 소유 여부는 연령효과도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자가소유율이 낮은 형성기 및 확대기의 각각 66.0%, 72.0%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집 마련보다 자가용을 우선'한다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외 주택 소유형태와 마찬가지로 해체기에서 동산 및 부동산 규모는 크게 감소하여 현재 이들 가구가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알 수 있다.

표 6. 가족주기 단계별 재산현황(2000년)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평균
평균 동산(십만원)	255.5	258.1	220.5	125.1	130.1	113.1	200.1
평균 부동산(십만원)	288.6	366.3	826.5	1,076.1	1,123.8	442.6	752.2
자가용소유율(%)	66.0	72.0	73.2	50.1	39.3	24.5	6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가족주기별 주거상태 및 재산현황의 차이는 소득 및 소비수준에 따른 가계수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주기 단계별로 가계 소득·소비수준 및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

득수준은 확대완료기 가구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형성기, 확대기 순이며, 축소기 이후 감소하여 해체기에서 가장 낮다. 이는 형성기와 확대기를 전후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탈락 및 40~50대 (남성)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활동력, 그리고 은퇴 시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지출은 확대완료기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소기 및 확대기 순이며, 역시 해체기에서 가장 적다. 이를 월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해체기가 79.4%로 가장 높고, 형성기가 가장 낮아 55.6%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 있는 해체기의 경우 소비지출 비율은 가장 높아 해체기의 경제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확대완료기 이후 축소완료기까지의 높은 소비지출 비율은 가구원수 및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축소기의 경우 자녀의 결혼·독립비용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가족주기 단계별 가계 월 소득·소비지출 현황(2000년)

(단위: 만원)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평균
월소득	197.5	181.0	205.5	145.6	123.5	99.0	181.2
월소비지출	109.8	111.7	149.3	112.8	94.6	78.6	129.7
소득-소비	87.7	69.3	56.2	32.8	28.9	20.4	5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가족주기별 경제생활의 안정성은 소득구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표 8>을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형성기 가구에서, 사업 및 부업소득은 확대완료기 가구에서, 재산·이자소득은 축소완료기 가구에서, 사회보장 수혜는 해체기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주기단계가 지날수록 근로소득 규모는 꾸준히 감소⁶⁾하고 기타 종류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특히 규모가 큰 사업소득, 재산·이자소득 등은 대부분 40~50대 남성이 가장 두었음 확대완료기 이후 또 해체기 이전 주기단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원수 역시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 가구에서 가장 많아 이들 단계에서 가장을 비롯한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양적으로 가장 활발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비동거자녀나 부모, 친척에 의한 이전소득은 이전주제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형성기 및 확대기, 그리고 축소완료기 이후에서 크게 나타나, 결혼초기 젊은 부부 및 은퇴 이후 노년기 부부 또는 독신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해체기 가구의 경우 경제적 자립성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수혜를 보면 가족주기단계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체기 가구의 수혜금액이 전체 가구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보장수혜 규모는 월평균 1만원 정도로 이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또는 부업·사업소득 외 여러 이전소득들 중에서도 낮은 편이어서 이들 해체기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6) 해체기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별거이후 가계 주부 양자로서 스스로 벌여 가족부양을 해야 하는 사별, 이혼·별거부인들의 취업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 8. 가족주기 단계별 소득종류에 따른 가계 소득수준 및 소득원수(2000년)

(단위: 개, 만원)

구 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평균
소득원수	1.18	1.18	1.25	1.41	1.40	1.29	1.27
근로소득	157.65	130.47	128.28	78.60	45.30	65.23	114.20
사업소득	37.51	44.85	67.82	46.84	48.94	19.19	55.63
부업소득	0.17	0.55	0.59	0.56	0.32	0.56	0.55
재산·이자소득	1.61	2.33	4.74	8.25	9.86	3.67	4.86
사회보장수혜	0.02	0.19	0.18	0.28	0.46	1.04	0.28
비동거자녀 보조	0.01	0.11	0.14	4.74	6.95	4.24	1.38
비동거부모 보조	1.14	1.14	0.41	0.41	0.33	0.49	0.53
기타 친척 보조	0.31	0.19	0.32	0.04	0.10	1.99	0.42
기타	0.18	0.25	1.26	4.90	9.32	1.87	1.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가족주기 단계별 부인들의 경제생활 상태를 정리하면, 형성기 및 확대기 가구의 경우 대부분 근로 및 사업소득을 통해 지출 억제 및 저축 중대를 도모하며, 본격적인 자녀교육 및 결혼·분가가 일어나는 확대완료기 및 축소기 가구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소비지출도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 가구에서 소득·소비 수준은 급격히 낮아지는데 특히 해체기 가구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주거사정도 매우 열악하여 이들 가구의 경제적 문제가 여느 단계에서보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5. 정책방향

가족주기 단계별 주거 및 가족경제상태의 변화 양상은 개인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복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가족주기를 주요 요인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저축의 요구가 큰 형성기 및 확대기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위주로, 소득은 물론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확대완료기 및 축소기의 경우 세금공제를 위주로, 그리고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의 경우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주로 한 소득보장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주기 중반까지의 가구 경제생활 상태가 대부분 자가 마련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 가족의 복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주택정책의 입안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가족주기 단계의 변화양상은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기는 단축되고 있으며,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노인부부들만의 기간과 배우자 사망이후 여성노인 혼자 남는 기간은 점차 연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결혼관념의 변화로 이혼·별거율이 증가하고, 따라서 해체기에 속하는 가족들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의 부인들은 30~40대에서 해체기기를 맞게 됨으로써 이들 가족의 경제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해체기 가족의 경우 주거 및 경제상태에 있어 주기단계 중 가장 열악한 상태로 이들의 경제적 지원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의 편모가

7) 2000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별 당시 부인연령은 44.1세, 이혼·별거 당시 연령은 36.0세이었음.

족 등 해체기 가족의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기술훈련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외 자녀양육기에서 해혼을 경험하는 젊은층 부인들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부부와 여성노인만으로 구성되는 축소완료기와 노년기 해체가족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즉 일자리 창출 및 정년 개념의 변경 등 노년기 경제활동을 보편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노후 소득 보장책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 급여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임의가입 등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